

# 사찰 풍경



## 배움과 닦음의 자리 운문사

### 부처님의 제자들은 쉬임 없는 길을 가고...

나지막한 운문사 돌담 위로 태양이 쏟아지고 도랑 위에는 하얀 구름이 떠있다. 반송(盤松)도 소매를 걷고, 만세루는 구름 밑에 누웠다. 이른 아침의 운문사, 햇님을 밟듯 햇볕을 밟으며 천년의 숨결을 따라 걷는다.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강원(講院, 운문승가대학)에 들었다. 금당(金堂) 처마 밑에 등지를 튼 제비가 지객(知客)인 듯 객을 맞는다. 금당에 든 사교반 스님들이 능엄경(楞嚴經)을 읽고 있다. 지극한 시선이 한 자 한 자 법(法)을 따라가고 댓돌 위의 하얀 고무신은 조용히 주인을 기다린다.

잠시 경전을 놓은 스님들이 밭짚모자를 쓰고 피약별로 나선다. 뒤에 나선 스님이 앞서 간 스님을 부르며 뛰어간다. 스님들이 도착한 곳은 운문사 텃밭이다. 울렁이다. 밭에는 호박, 고추, 상추를 비롯한 갖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밭고랑을 살피는 손길은 경전을 넘기던 손끝과 다르지 않고 흙냄새 위에서 마주한 눈빛은 서로의 스승이다.

저녁 해를 등에 지고 두 스님이 걷는다. 쉽지 않았을 출가(出家)의 기억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향해 내딛던 발걸음. 오늘도 쉬임이 그 길을 간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 범양금고 불전함

福田函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BY630 사무가형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90×335	BY6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70×500×500 내부 450×390×320	BY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00×410×340	BY86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00×460×340
--	---	---	---

불전함 내부구조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 외 부: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가로 380×세로 90(mm) · 무 게: 60Kg

**특허신청중, 주문제작, 전국 택배 가능 (최대 3일 이내)**

마사신 탐사, 부산 금정사의 계룡사,보광사,법성사,해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사장 직)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